주가	환율	금리
-8.73	-8.60	+0.03
1,329.86 (코스피지수)	943.80원 (원/달러)	4.77% (3년만기 국고채)

코스닥지수	640.34	(-3.36)
다우(22일)	11,125.33	(-18.73)
나스닥(22일)	2,172.86	(-21.02)
닛케이	15,599.20	(-258.67)
엔-달러 환율(도쿄 17:00기준)	111.31엔	(-0.11)
유로 달러 환율	1.2858달러	(+0.73)
3년만기 회사채	5.04%	(+0.03)
콜금리	3.97%	(보합)

aT, 신선농산물 4개업체와 지원약정

aT(농수산물유통공사) 광주·전남지사(지사장 신광수)는 가공식품과 신선농산물의 해외 마켓테스트와 시험수출 지원 등을 통한 수출유망품목개발을 위해 22일 관내 4개 업체와 1억4천만원 지원약정을 체결했다.

이번에 선정된 수출유망품목 중 가공식품은 (주) 화인코리아(대표 나원주)의 홍삼삼계탕, 청매실농원(대표 홍쌍리)의 청매실원이며, 신선 농산물은 (주)하이코리아유통(대표 최윤경)의 소라마메(누에콩), (주)전남무역의 양란(절화)이다. 가공식품은 각 3천만원, 신선농산물은 각 4천만원이 지원된다.

aT는 지원약정한 수출유망품목들에 대해 중간평가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체계적인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해 이들 품목들의 해외 주류시장 진출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새얼굴/

"고객 밀착 자산운용…경쟁력 갖출것"

정종환 메리츠증권 광주지점장

"단순한 위탁매매 업무보다는 금융상품 유치와 기업금융에 초점을 맞춰 운용할 방침입니다"

정종환(45) 신임 메리츠증권 광주지점장은 "중·소형 증권사이지만 고객 밀착형 자산운용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며 "화재와 종금 등의 계열사를 갖춘 종합 금융회사로 발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정 지점장은 "기업공개를 위해 광주의 전략산업인 광산업 및 태양광, LED 관련 업체와 접촉하고 있다"면서 "머지않아 우리 증권사를 주간사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는 업체가 나올 것이다"고 말했다.

순천출신인 정 지점장은 순천고와 전남대 무역학과를 졸업한뒤 광주은행에서 국제부와 경영관리본부 등에 근무했으며 2000년 메리츠증권으로 자리를 옮겼다. 취미는 바둑(아마 1급)과 등산이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광주 생산도시 우리가 이끈다 1

연구개발기관은 지역내 지식산업을 이끄는 원천이 되고 있다. 차별화된 기술력을 통한 경쟁력 확보는 기업은 물론 지역·국가의 생존을 좌우하는 핵심요소가 아닐 수 없다. 서남권의 연구개발(R&D) 중심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지역내 관련기관들의 역할 등을 시리즈로 싣는다.

프롤로그

한국광기술원 등 연구개발(R&D)기관들이 신기술·제품개발과 산학협력 비즈니스의 선순환 모델을 제시하면서 광주 첨단과학산업단지를 국내 대표적 지식산업클러스터로 발돋움시키는 등 광주 생산도시화를 이끌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2000년 이후 광산업 육성을 계기로 첨단단지에 한국광기술원을 비롯,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광주연구센터 등 8개의 R&D기관을 유치해왔다.

2000~2003년 4천20억원을 투입한 광산업 1단계 사업과 함께 한국광기술원, 한국광산업진흥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광통신연구센터가 자리를 잡았다.

특히 2001년 4월 개원한 한국광기술원은 1천748억원을 들여 500여평의 클린룸과 첨단장비를 갖춰 국내 유일의 광관련 전문생산연구소로 부상하고 있다.

이어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광주연구센터, 전자부품연구원 광주지역본부, 과학기술응용연구소, 기초과학지원연구원 퇴행성질환재생연구센터 등이 속속 입주했으며 기존 기관들도 기능을 강화했다.

95년 설립된 광주과기원은 교수 1인당 SCI(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급 논문 게재건수와 연구계약고에서 국내 1위를 차지, 국내 최고 수준의 이공계 대학원으로 성장해 이들 기관들과 유기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R&D기관들이 한곳에 모이면서 연구개발인력과 특허출원건수도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산업연구원(KIET)이 지난해 12월 각 시도별 연구개발활동을 분석한 결과 2001년 광주의 연구개발인력은 4천586명(전국의 1.8%)에서 2004년 7천919명(2.5%)으로 증가했다. 특허출원 건수도 같은 기간 1천322건(4.1%)에서 4천6건(9.5%), 연구개발비의 경우 1천788억원(1.1%)에서 2천571억원(1.2%)로 늘어났다.

이처럼 R&D 인프라가 구축되고 이들 기관이 체계적인 연구와 기업지원 기능을 수행함에 따라 관련업체의 창업과 역외기업들의 이전도 점차 활성화되는 추세다.

지난해 한국광기술원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30개 업체 중 13개 업체가 수도권 등 타지역에서 이주해왔으며, 최근 (주)휘라포토닉스는 노르웨이 광통신업체로부터 700만달러를 유치하는 성과를 올렸다.

한편 광주시는 우리나라 R&D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광주과기원 학사과정, 국립장수연구센터, 한국원자력연구소 레이저공학센터 등 공공기관을 신설하고 ▲Bell Lab(미국) 연구소, IOFFE(러시아) 연구소, 프라운호퍼(독일) 연구소 등 민간연구소도 유치할 계획이다.

시는 또 광주·대구·대전간 '그랜드 트라이앵글 테크노벨트' 구축을 통한 지역간 균형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다음달 제정예정인 R&D 특구법 시행령의 특구지정 요건 합리화를 과기부에 요청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R&D기관이 지식산업클러스터 선도

〈연구개발〉

2000년 이후 광기술원 등 8개기관 유치
기업지원체계 구축… 관련업체 창업 유도

박성용 명예회장 1주기 추모식에 참석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왼쪽 세번째)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부회장(〃 첫번째), 고인의 부인인 마가렛 클라크 박여사(〃 다섯번째), 황인성 전 국무총리(〃 여섯번째), 이홍구 전 국무총리(〃 일곱번째) 등이 추모비를 제막하고 있다.

故 박성용 금호 명예회장 1주기 추모식

정·재계인사 300여명 참석

지난해 타계한 박성용 금호아시아나그룹 명예회장의 1주기 추모행사가 23일 경기도 화성시 기천리 선영과 서울 종로구 신문로 금호아트홀에서 열렸다.

이날 추모행사에는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부회장, 고인의 부인인 마가렛 클라크 박여사, 이홍구 전 국무총리, 강신호 전경련회장 등 평소 고인과 친밀했던 정·재계, 학계인사 300여명이 참석, 고인의 뜻을 기렸다.

또 오후 8시 금호아트홀에서 수백 명의 음악영재를 키운 고인의 발자취를 기리는 추모음악회가 열렸으며 음악회가 끝난 뒤 금호아트홀 로비에서 박 명예회장의 흉상 제막식이 펼쳐졌다.

청동으로 된 흉상은 높이 59cm로 110cm높이의 받침대 위에 올려져 있으며 홍익대 조소과 김영원 교수가 제작했다.

고인은 학자이자 기업인으로서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크게 공헌했으며 문화예술 발전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등 기업이익의 사회환원에 크게 기여했다.

박 명예회장은 예술의전당 이사장뿐 아니라 통영국제음악제 이사장, 한국메세나협의회 회장을 지냈다. 또 1990년 금호현악4중주단을 창단했으며 2004년 한국인으로는 처음 프랑스 '몽블랑 예술후원자상'을 받기도 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금융민원 Q&A

보험상품 갈아타기

Q:기존보험 해약 새 상품 가입 손해여부?

A:설계사 충분한 설명없이 계약땐 낭패

Q : 김모씨는 평소 거래가 있던 보험설계사로부터 5년전 가입했던 보험상품보다 훨씬 더 좋은 상품이 나왔다는 설명을 들었다. 김씨는 기존 계약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계약만을 유지해도 손해보지 않는다는 이 설계사의 끈질긴 권유에 알아서 처리해 달라고 했는데.

A : 모집종사자가 충분한 설명없이 보험계약자에게 기존보험계약을 해약시키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것은 자칫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큰 손해를 입힐 수 있다. 이에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계약자 등의 이익보호를 위해 중요사항에 대해 충분한 설명없이 기존보험계약을 해약시키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특히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기존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한 행위로서, 당해 보험계약자 등에게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이자율 등 중요한 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을 경우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하게 한 행위로 간주해 모집종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소멸된 보험계약은 6개월이내에 부활을 청구하고 새 보험계약은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만약 설계사가 아무런 설명없이 단지 손해보지 않는다는 설명만을 하면서 기존보험계약을 해약시키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면 보험업법에 위배될 소지가 크며, 이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기존보험계약의 부활 및 새로운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보험이 아직 해약되지 않았고 새로운 보험계약도 체결되지 않은 상태라면 설계사에게 충분히 설명해 주도록 요구해 해약에 따른 불이익 및 새로운 상품 가입에 따른 장단점을 꼼꼼히 살펴본 후 결정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광주지원=국번없이 1332〉